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11호

Jeff Pippenger

2025-12-14

숫자 11

늦은비 기별은 다가오는 은혜의 시기 종결에 대한 경고이자 개인적 준비를 촉구하는 호소이다. 그 두 개념은 이사야서 10장과 11장에 기록된 환상 속에 표상되어 있으며, 1989년에 봉인이 풀린 다니엘 11장의 기별의 맥락에서 그렇게 제시된다. 그리고 그 기별의 감추어진 역사는 14만 4천의 인침의 때에 봉인이 풀리는데, 그들은 그 환상에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로 표상된다. 이 두 선을 함께 놓아 보면, 성경 예언 전반에 흐르는 이 내적과 외적 두 선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한 라오디게아인들을 대표하는 아하스를 위한 경고를 나타낸다.

다니엘 11:11과 요한계시록 11:11은 동일한 내적과 외적 표현을 제시하며, 다니엘은 외적을, 요한계시록은 내적을 나타낸다. 이 두 내적·외적 '장과 절'은 10장과 11장의 외적·내적 메시지와 직접 연결되며, 그 연결은 이사야 11:11에서 이루어진다.

이사야서 6장은 9/11에 해당하며, 9/11에서 이사야가 사자로서 정결하게 되고 기름부음을 받는 것을 드러낸다. 7장부터는 9/11에 전해진 메시지의 개요를 제시한다. 10장은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역할을 밝히는데, 이는 그 마지막 여섯 절이 1989년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린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11장은 9/11과 이사야의 기름부음과 그의 메시지를 상징한다. 1절은 "Jessie"로 10절과 연결되어 있고, 10절은 "그 날에"라고 말하며, 11절은 이어서 "그 날에 이루어지리니 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날은 1850년이였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리라.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 민첩한 분별을 갖게 하시리라.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공평으로 땅의 온유한 자들을 바로잡으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공의는 그의 허리의 띠가 되고, 성실은 그의 허리춤의 띠가 되리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끄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는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라.

11:10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백성들의 기치로 설 것이며, 그에게 이방인들이 찾아올 것이며, 그의 안식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11:11 그 날에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앗수르에서와 애굽에서와 바드로스에서와 구스에서와 엘람에서와 스날에서와 하맛에서와 바다의 섬들에서, 자기 백성 중에 남겨질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11:12 또 그가 열방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리라.

에브라임의 시기도 사라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리라.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을 급습하고, 함께 동쪽 사람들을 노략질할 것이며, 그 손을 에돔과 모압 위에 뻗칠 것이요, 암몬의 자손은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그리고 주께서 애굽 바다의 허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며, 그의 강한 바람으로 강 위에 손을 흔드사 그것을 일곱 갈래 시내로 치시고, 사람들이 발을 짓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또 앗수르에서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길이 있게 하시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되리라. 이사야 11:1-16.

1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올 것이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묘사는 계속되지만, 그 묘사는 이사야의 시대나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걸으시던 때보다 마지막 때에 더 해당된다.

세심히 읽어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모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특징들이며, 10절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한다. 1절에서 10절까지 생각의 흐름에는 단절이 없다. 10절은 "그리고 그 날에"라고 하는데, 이는 1절과 같은 날에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 10절과 1절 모두 "뿌리"를 지칭하며, 그로써 두 절을 한 줄 한 줄 서로 이어 준다.

1절과 10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한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리라.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가 있어 백성들의 깃발로 설 것이니, 열방이 그에게로 나아오고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리라."

"막대기"는 권위의 상징이다.

그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였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그의 보좌로 들려 올라갔다. 요한계시록 12:5.

"막대기"는 선택, 구분, 분리의 상징이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서 여호와 앞에 지팡이들을 두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 지파를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고 봉오리가 맺히며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를 맺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있던 모든 지팡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지고 나왔고, 그들은 보고 각자 자기 지팡이를 가져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반역한 자들을 경계하는 표징으로 삼기 위해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 앞에 두어 보관하라. 그러면 그들의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여 그들이 죽지 않게 하라." 모세가 그대로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민수기 17:7-11.

씩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늦은비의 시기에 해당하는 '지팡이'가 무엇인지 가리킨다. 왜냐하면 열세 개의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난 것은 아론의 것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하나님께서 늦은비의 메시지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열두 개의 반역적인 '지팡이'와의 구별을 드러내실 늦은비의 시기를 상징하며, 이는 또한 엘리야가 불로 행한 시연이 참과 거짓의 구별을 표시했던 것과 같다. '지팡이'는 또한 측량과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막대기 같은 갈대 하나가 내게 주어졌고, 천사가 서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요한계시록 11:1.

"막대기"는 제시의 줄기에서 나오며, "제시"는 성경 예언에서 이정표가 그러하듯 "두드러지다"를 뜻한다. 파레즈는 제시의 실제 "뿌리"였고, 파레즈는 "균열, 터져 나오거나 흩어지다"를 의미한다. 파레즈는 제시의 혈통의 뿌리이자 시작이다. 그러므로 "제시의 뿌리"는 알파인 파레즈와 오메가인 제시, 곧 시작과 끝의 상징이다. 제시의 뿌리는 흩어짐(파레즈)으로 시작하여 한 사람이 서 있는 이정표에서 끝난다.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은 예언적으로 한 왕국을 표시한다. 성경에서 파레즈는 등장 이전의 연결 고리 없이 혈통을 시작하며, 그의 이름이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족보 기록과 이름은 파레즈를 시작으로 규정하고 제시를 끝으로 만든다. 멜기세덱 역시 파레즈와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계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된 성경 인물이다. 파레즈의 뿌리에는 그가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대표한다는 진리가 담겨 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반차이다.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선구자는 곧 예수이시며,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 6:20.

제시의 뿌리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었고, 시작은 끝을 반영해야 한다. 제시는 일어설 멜기세덱 제사장직의 마지막 무리를 대표하는데, 이사야에 따르면 그들은 민족들에게 기치가 된다.

"stem"은 '(나무를) 베다; (베어졌거나 심어진) 나무의 줄기 또는 그루터기'를 뜻하며, "stem"은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제쳐진 왕국에서 돌아난다. 예언적으로 나무는 왕국을 가리키며, 왕국이 끝나면 그 나무는 베어진 것이다.

이 구절의 "줄기"는 윗가지가 아니라 그루터기에서 나온다. 그루터기로 상징되는 옛 왕국에서 권위의 상징인 "막대기"가 나오며, 그 권위는 그 "막대기"가 "늦은 비의 메시지"의 "싹과 꽃"을 틔우고 피워 내는지에 근거한다. 그 권위는 베어진 이전 왕국에서 비롯된다.

"뿌리"는 "제시의 뿌리"이며,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줄기"는 그 뿌리가 제시의 뿌리인 "그루터기"에서 나온다. 권세를 세우는 줄기는 그루터기에서 나오지만, 가지는 뿌리에서 나오며, 그 뿌리는 깃발이다. 뿌리가 시작이고, 가지가 끝이다.

"branch"라는 단어는 파수꾼 또는 이정표를 의미한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가지가 일요일 법률이 제정될 때 온다고 알려준다.

그 날에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의 수치를 제하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소서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딸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한 자들에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시온에 남은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살아 있는 자들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버리시고, 심판의 영광과 소멸의 영으로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이사야 4:1-4.

일곱 여인이 붙잡는 '한 남자'는 교황으로, 그는 일요일 때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되어 방주에 있던 여덟 영혼을 모방한다. 일요일 때, '그 날에' '주님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심판의 영광과 불사르는 영으로 그 한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가 된다. 심판의 영광과 불사르는 영으로 하는 그 정결은 말라기 3장의 언약의 사자에 의해 일요일 때 이루어진다. 그 '아름다운 가지'는 그루터기에서가 아니라 기치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십사만 사천이다.

그들의 권위는 몰락한 왕국의 가지에서 나온 막대기로 상징된다. 필라델피아의 왕국은 1856년부터 1863년까지 몰락하였고, 그 몰락한 왕국에서 확립된 권위는 일요일 법령 때에 다시 확립된다. 기치인 그 가지가 들어 올려질 때, 14만 4천의 라오디게아 운동은 14만 4천의 필라델피아 운동으로 전환된다. 그때 밀러라이트 또는 필라델피아의 왕국에서 나온 권위, 곧 막대기는 이사야 22:22에서 엘리야김 위에 놓이는 열쇠로 상징된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22.

그 구절은 1844년 10월 22일을 가리키며, 엘리야김을 '열쇠'를 받는 자로 지목하고 있다. 앞선 두 구절에서 라오디게아의 권위는 셉나에게서 빼앗겨 엘리야김에게 주어진다.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 한때 선택된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던 권위는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주의의 왕국에서 거두어져, 십사만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의 왕국—곧 영광의 왕국—에 주어진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6:16-19.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로 표상된 권위의 막대기는 이사야 22:22에서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놓인다. 베드로는 일요일법령 직전에 그리스도와 언약에 들어가는 십사만 사천의 한 갈래를 대표한다. 그 본문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데, 이는 다니엘 11장 13절부터 15절의 파니움이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데, 이는 언약적 관계를 표상하며, 또한 'Peter'라는 이름은 알파벳에서 각 글자의 서수 위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144,000과 일치한다. 썩나가 공처럼 들에 던져질 때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놓이는 그 권위, 곧 막대기 또는 열쇠는 1856년부터 1863년에 이르기까지 베어버림을 당한 빌라델비아기의 밀러파 재림주의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막대기'이다.

베드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권세를 받고 있다. 이는 알곡이 오순절의 요제로 드리는 떡 제물로 들어 올려지기 때문이다. 가라지는 먼저 분리되는데, 이는 오순절의 요제로 드리는 떡들 속의 누룩이 굽는 과정을 통해 제거되는 것으로 표상되어 있다. 막대기 또는 열쇠의 권세는 몰락한 왕국의 그루터기에서 나오며, 기치인 그 가지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고 곧 이새의 뿌리이다. 이는 예수께서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뿌리는 시작이고 가지는 끝이다. 이 예언적 적용은 그리스도의 시대이든 오늘날이든 트집 잡는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것이 늦은 비의 방법론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이며 또한 다윗의 집의 열쇠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열쇠는 닫혀 있었던 다윗의 집의 문을 연다. 그 열쇠는 하늘 성소, 곧 다윗의 집으로 통하는 문을 연다. 1844년 10월 22일의 알파는 일요일 법의 오메가에서 반복된다.

제시의 아들 다윗은 그리스도 당시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과의 더 이상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수수께끼를 기록하여, 이로써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분의 증언도 끝을 맺게 했다.

다윗의 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주께서 시온에서 네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너는 네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라. 네 백성은 네 권능의 날에 거룩함의 아름다움 가운데 자원하리니, 새벽의 태에서 나오는 네 젊음의 이슬이 있도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1-4.

팔모니는 이 구절을 시편 110편에 두기로 정했는데, 물론 그것은 수학의 세계에서 특별한 수로 인정되는 또 하나의 숫자이기도 하다. "220"의 절반이자 "11"의 열 배인 "110"이라는 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리라고 한 영혼으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며, 실제로 그러하며 그 구절 자체도 그렇다. 그것은 다윗의 노래이며, 다윗은 십사만 사천을 상징하므로, 그것은 포도원의 노래, 곧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에서 나온 한 구절이다. 그것은 포도원의 이전 농부들이 제쳐지고 포도원이 십사만 사천에게 넘겨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밝힌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오순절기의 절정에서 오순절의 권능과 일치하는 "네 권능의 날"이다.

'네 젊음의 이슬'과 함께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거듭남은 회심과 생명의 비유이다. 십사만 사천은 2023년 7월에 태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의 젊음의 이슬과 함께 태어났으니, 이는 그들이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 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며, 그것은 또한 밀러파의 시작, 곧 그들의 '젊음' 때에도 일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같은 이슬이니, 오메가의 역사 안에서 알파의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권능 부여'의 '날'에, 썩나가 그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의 '상태'에서 '물러나게' 되며, 엘리야김을 '끌어내릴' 때, 십사만 사천은 오메가 제사장으로 세움받는다. 그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움을 받았으니, 십사만 사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며,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들이다.

'그의 권능의 날'에 주께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의 권능의 흠'을 보내실 것이다. 그의 왕국들, 곧 은혜(칭의)와 영광(성화)의 권세가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에게 부여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시온에서 보내심을 받는다. 이는 시온의 의미가 십사만 사천의 기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으로 어떻게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찌 그가 다윗의 아들이겠느냐?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누구도 그에게 더 이상 어떤 질문도 감히 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24:41-46.

다윗이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맺는 예언적 관계는 'line upon line' 방법론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며, 그 규칙은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도 재림운동의 젊은 시절에 하늘의 이슬이 부어진 곳이 '밤중의 외침'이라는 기별이 전해지던 동안의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네 청춘의 이슬'은 14만 4천 위에 있으며, 그 이슬은 9/11에 내리기 시작했고, 일요일 법령은 남은 자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기름부음 받는 '권능의 날'이다.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전투하는 교회)의 그루터기에서 가지(승리하는 교회)가 나오며, 한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십사만 사천은 그의 권능의 날에 요제로 흔들여 드러지는 영광스러운 열매의 가지가 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생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잠언 1장

1850년 4월 1일 '작은 무리'에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주께서 1월 26일에 내게 한 환상을 보여 주셨는데, 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부가 우둔하고 잠들어 있으며, 반쯤 깨어 있을 뿐이라 우리가 지금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먼지 술'을 든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이들은 쓸려나갈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께 그들을 구해 주시고, 조금만 더 유예해 주시며, 그들이 자신의 끔찍한 위험을 보아 영원히 너무 늦어지기 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멸망이 강력한 회오리바람처럼 오고 있다.' 나는 천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소유물에 집착하여 그것들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고, 영적 양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굶주린 양들을 먹이러 가는 전도자들이 길을 서둘러 떠날 수 있도록 그 소유를 희생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구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현재의 진리를 알지 못해 죽어 가는 가련한 영혼들과,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 광경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천사에게 그것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대의가 그들의 재산 일부를 요구할 때, 예수께 나아온 그 젊은이처럼[마태복음 19:16-22] 그들이 근심하며 돌아서는 것을 보았고, 머지않아 범람하는 재앙이 지나가 그들의 소유를 모조리 쓸어가 버릴 것이며, 그때에는 세상 재물을 희생하고 하늘에 보화를 쌓기에는 너무 늦을 것임을 보았다.

그때 나는 영광스러운 구속주를 보았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그분은 영광의 나라를 떠나 이 어둡고 외로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보배로운 생명을 내어 주시고, 의인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는 잔인한 조롱과 채찍질을 견디시고, 역어 만든 가시관을 쓰셨으며, 동산에서 큰 피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셨다. 온 세상의 죄의 짐이 그 위에 놓여 있는 동안이었다. 천사가 물었다. '무엇 때문인가?' 오, 나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보고 알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을 당하셨으니,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속량하시려 함이었다.

그때 다시금 내 앞에 드러난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와 고난과 죽으심을 간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도록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해 주려고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음에도,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진리를 보내는 일에 이 세상 재물을 내어놓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었다. 현재의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기시려고 빌려 주신 하나님의 돈을 사자들에게 건네는 그 작은 일조차도 어려웠다.

그때 고난당하신 예수님, 곧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의 희생과 너무도 깊은 사랑이 다시 내 앞에 제시되었고; 이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분의 제자라 하는 자들, 즉 구원의 사업을 돕는 일을 대수로운 일로 여기는 자들의 삶도 내게 보여졌다. 천사가 말하였다. '이러한 자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천사가 대답하였다. '아니, 결코, 결코, 결코 아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하늘에서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송을 결코 부를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행하시는 그 신속한 일이 곧 의로 단축되어 마무리될 것이며, 흩어진 양 떼를 찾아내기 위해 날랜 전령들이 길을 재촉해야 함을 보았다. 한 천사가 말하였다. '모두가 전령들이냐? 아니, 아니, 하나님의 전령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메시지도 받지 못한 채 여행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되고 욱되게 되었음을 보았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에게 가야 할 의무가 없던 곳으로 여행하는 데 쓴 돈 한 푼 한 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돈은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데 쓰일 수 있었고, 그것이 부족했던 탓에,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사자들에게 필요한 수단만 있었더라면 영혼들에게 줄 수 있었을 영적 양식이 없어 영혼들이 굶주리고 죽었다.

"큰 흔들림이 시작되었고 계속될 것이며, 진리를 굳게 붙들고 굽히지 않는 입장을 취하여 하나님과 그의 대의를 위해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모두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천사가 말하였다. '너희는 누가 희생하도록 강요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자원하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그 밭을 사려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 — 나는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아껴 주시도록 부르짖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기진하여 쓰러지고 죽어 가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손으로 노동할 힘이 있고 그 대의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 책임지는 만큼, 그 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천사에게 자기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진리로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시내산의 모든 우레와 번개로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천사의 메시지로도 그들을 깨우지 못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4월 1일.